

# 건강보험 더 쉽고 간편하게... 보험사, 제3보험 파이 키운다

제3보험 시장 연평균 7% 고성장  
KB손보 3.10.10 간편건강보험  
유병자 고객의 건강등급 세분화

손보사 독주 속 생보사 상품 강화  
교보, 2종 출시 등 라인업 확대

건강보험의 가입 문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보험업계가 쉽고 가볍게 가입할 수 있는 건강보험 상품을 선보이면서 제3보험 시장 점유율 확대를 노리고 있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은 지난 8일 간편건강보험 신상품을 출시했다. 지난 5월 초경증 유병자를 위한 '3.10.10 슬기로운 간편건강보험 플러스(Plus)'에 이어 7월에는 입원과 수술 중 하나만 고지하고 가입할 수 있는 신상품 '입원·수술 하나만 물어보는 간편건강보험'을 선보여 건강보험 상품 라인업을 강화했다.

3.10.10 간편건강보험은 업계 최초로 간편건강보험의 기존 계약 전 알릴 의무에 10년 내 고지 질문을 추가해 유병



ChatGPT에 의해 생성된 '건강보험 가입 문턱 완화' 이미지.

자 고객의 건강등급을 세분화했다.

이번달 새롭게 출시한 간편건강보험은 고지사항 중 입원과 수술에 대한 질문을 분리했다. 보장이나 상품 구조, 납입면제 등은 기존 3.10.10 상품과 동일하나 입원과 수술을 묻는 질문사항을 분리해 가입 문턱을 낮춰 고객의 상품 선택권을 넓혔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기존 간편보험은 고지기간에 따라 상품을 구분했지만 고지질문을 세분화해 새로운 유형의 상품을 선도적으로 출시했다"고 밝혔다.

한화손해보험은 지난 5월 'LIFEPLUS 3N5 간편건강보험'을 선보였다. 유방암(수용체타입)진단비 등의 여성특

화담보를 신설하고 암 진단 후 특정치료비에 대한 감액기간을 없앴다. 해당 상품은 입원·수술 병력고지 기간에 따라 '305, 315, 325, 335, 345, 355'의 6개 질문유형을 모두 담아 중증유병자부터 경증유병자까지 모두 가입할 수 있다.

생보업계도 간편건강보험에 집중하고 있다. 교보생명도 지난 6월 '교보간편평생건강보험', '교보간편마이플랜 건강보험' 등 2종을 출시해 건강보험 상품 라인업을 확대했다. 간편평생건강보험은 유병자와 고령자를 위해 3대 질병을 포함한 주요 질병을 평생 보장하는 중신보장의 형태다. 간편마이플랜건강보험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더욱 간소화하고 유병자들이 필요한 보장을 맞춤형 설계할 수 있도록 가입 문턱을 낮췄다.

흥국생명도 이번달 유병력자를 위한 '다사랑 3N5 간편건강보험'을 출시했다. 일정 기간 동안 입원 및 수술 이력이 없는 경우 계약전환제도를 통해 보험료를 할인 받고 가입자는 자신의 건강상황에 맞게 고지의무기간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보험업계가 간편건강보험으로 건강

보험의 가입 문턱을 낮춘 요인으로는 제3보험 시장 점유율 확대가 꼽힌다. 제3보험은 질병·상해·암 등 보험업계에서 모두 판매할 수 있는 보험을 말한다.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건강보험으로 고객 유입시키고 제3보험 확장을 노린다는 계획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건강보험 신상품을 출시해 상품 라인업을 강화하고 제3보험 시장 쪽에 적극적으로 영업을 푸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제3보험 시장은 연평균 7%의 고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IFRS17에서 보험계약마진(CSM)이 중요해짐에 따라 건강보험 판매 확대는 필수로 꼽힌다. 생보사들이 점유율 확대를 노리고 있으나 여전히 손보사가 70%가 넘는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IFRS17 도입 후 수익성 높은 건강보험 위주로 판매하는 추세"라며 "보험사 입장에서 수익성과 제3보험 시장 개척 측면에서 가벼운 건강보험 위주로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 GS건설, 저출생 극복 앞장... 난임시술비 등 지원 확대

임신·출산·육아 관련 사내제도 개편  
산후조리원비 50% 지원, 축하금 2배

GS건설이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GS건설은 임신·출산·육아 전 주기에 걸쳐 혜택을 확충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강 및 신설한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난임시술비와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등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들이 새로 마련됐다.

GS건설은 업계 최초로 2014년 사내 어린이집을 만들어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육아휴직제, 난임 휴가 제공 등 기존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갖추고 있지만 저출생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기업차원에서 지원을 한층 강화해 사회



최근 쌍둥이 자녀를 출산해 육아휴직 중인 GS건설 직원(왼쪽)이 아내와 함께 회사에서 준비한 출산축하선물을 받고 웃고 있다. /GS건설

적 역할을 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번 제도 개편을 진행하게 됐다.

GS건설의 사내 제도 개편은 임신부터 출산, 육아 전 주기에 걸쳐 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난임 시술비 지원과 산후조리원 지원과 같이 서술시 등 지자체 지원제도가 있는 부분도 회사 차원에서 추가로 보강했다.

난임시술비는 1회당 100만원 한도 내, 총 5회까지 지원한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실 발생비용의 50%를 회사에서 지원하고, 출산 축하금도 기존보다 2배가량 상향 지급한다.

출산축하선물 및 예비부모를 위한 교육, 육아휴직 복지자를 위한 적응 교육 등 다양한 교육제도를 신설했다. 법적으로 지정된 육아휴직 기간 1년 외 추가로 최대 1년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했고, 남성 직원들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도 기존 10일에서 2배 확대해 20일로 적용한다.

GS건설 관계자는 "저출생 문제가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사내 제도 보강, 신설 및 눈치보지 않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사내 분위기 조성을 통해 직원들이 일과 가정이 양립된 삶을 영위함으로써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나아가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GS건설 허윤홍 대표는 최근 비전 선포를 통해 "임직원들이 회사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며 조직 구성원들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임신·출산·육아 관련 사내제도 개편 외에도 수평적인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호칭단일화, 사무실 파티션 없애기, 여름철 반바지 허용 등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소통하며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내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

## BNK부산은행 금융취약층 대상 300억 부채 탕감

BNK부산은행은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총 3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 탕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부산은행은 고령자 및 장기소액연체자 등 금융취약계층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오는 2026년까지 대상자를 선정해 총 300억원 한도로 일괄 채무 감면 및 신용정보등록 해제 조치한다.

부산은행은 이번 프로그램으로 채무자 상환 부담 해소 및 연체 정보를 해제해 금융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재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 신한은행 우버 택시기사들에 금융 솔루션 제공

신한은행이 25일 우버 택시와 '가맹 택시기사 금융솔루션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신한은행은 우버 가맹 택시기사들을 대상으로 택시전용 대출상품 '신한 MY TAXI 행복대출' 금리 및 한도를 우대하고 운송수입금 입금계좌를 신한은행으로 지정하는 경우 캐시백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금융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가맹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 세미나, 전문가의 자산관리 서비스 등 폭넓은 혜택을 제공하고, 신한은행 고객을 대상으로 우버 택시 할인·이용권도 제공할 예정이다.

/안승진 기자 asj1231@

/나유리 기자 yul115@

## SC제일은행, 최고 연 4.0% 수시입출금 'Hi통장' 선포

첫 거래고객 잔액별 우대금리 제공  
연말까지 특별금리 일괄제공 행사

SC제일은행은 입출금이 자유로운면서도 우대금리 제공 조건 충족 시 최고 연 4.0%의 금리를 제공하는 'SC제일 Hi(하이)통장'을 선보인다고 25일 밝혔다.

Hi통장은 첫 거래 고객에게 반갑게 인사(Hi)한다는 의미와 고금리(High)를 제공한다는 중의적 의미를 갖는 수시입출금 신상품이다. 기본금리 0.1%에 더해 우대금리를 최고 3.9%포인트(p)까지 추가로 제공한다.

우대금리 제공 조건은 SC제일은행

▲첫 거래 고객(신규일 기준 31일 이내 계좌 신규 고객)에게 잔액 구간별로 2.4~3.4%p ▲재휴 채널에서 계좌 개설 시 0.1%p ▲마케팅 동의 시 0.2%p ▲SC제일은행의 프라이머리티 등급 이상 고객 0.2%p 등이다.

첫 거래 고객에게 제공되는 계좌잔액별 우대금리 제공기간은 원칙적으로 가입일로부터 1년 동안 제공되지만,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1년 단위로 연장된다.

SC제일은행은 Hi통장 출시를 기념하고자 우대금리 가운데 '첫 거래 고객'의 계좌 잔액별 우대금리 조건을 올해 말까지 일괄 잔액에 관계 없이 첫 거래 고객 모두에게 3.4%p의 특별금리를 일

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첫 거래 고객의 잔액별 우대금리는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일별 최종 잔액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화(▲1억원 미만 2.4%p ▲1억~3억원 2.9%p ▲3억원 초과 3.4%p)된다.

Hi통장은 인터넷·모바일뱅킹 이체, 영업시간 외 당행 자동화기기 출금, 당행 자동화 기기 타행이체(월 10회까지), 타행 자동화기기 출금(시간외, 공휴일 포함), 타행 자동이체 등 각종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혜택도 제공한다.

박종관 SC제일은행 담보여신·수신 상품부장은 "Hi통장은 입출금이 자



SC제일은행은 최대 연 4.0%의 금리를 제공하는 고금리 수시 입출금 상품인 'SC제일 Hi통장'을 출시했다. /SC제일은행

유로우면서도 업계 최고 수준의 금리 혜택과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까지 제공한다"며 "여유자금 예치를 목적으로 파킹통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적격일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